

다산포럼

누가 그들을 거리에 나서게 하는가



김정남 언론인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짓밟히고 침해당할 때면 언제 어디서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누구이든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대변하면서 유린당한 그의 권리를 회복해 주기 위하여 그를 거슬러 항변하고 저항하고 투쟁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 글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이름으로는 최초로 1974년 9월 26일 명동성당의 기도회에서 발표된 ‘제1 시국선언’의 일절이다. 얼마 전 이 땅을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고통 앞에는 종립이 없다”, “교회는 약자를 돕는 야전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또한 “기쁨과 희망, 슬픔과 분노, 특히 현대의 가난한 사람과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분노”라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의 정신과도 다르지 않다.

정춘 특·특



신주화 수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치열한 입시 경쟁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했다. 그것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다. 하지만, 대학은 진짜 공부, 진짜 도전의 시작이었다.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입학했느냐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대학생이 이런 도전 앞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이 더 이상 성공의 사다리가 아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나 ‘아픈 게 청춘이다’는 책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을 것이다.

거기에는 갑자기 찾아온 자유와 자율의

시간은 당황과 방황, 심지어는 방황의 시간으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나 성적으로만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나 역시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1년 동안의 방황 끝에 다시 대학교에 도전하여 입학 하였고, 그때가 돼서야 삶이 곧 바로 성적순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삶은 노력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춘들을 위해 내가 다니는 수원대학교는 교양필수 과목으로 ‘자조(SELF-HELP)’를 개설하여 모든 신입생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누구나에게 꿈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힘을 길러야 한다. 길을 거슬러 오르지 않고, 거슬러 오를 수 없는 무기력한 불고기는 산란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이에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조정신’을 통하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한 것이다.

스스로를 돕는 자는 하늘도 돕는다

나도 이 과목을 수강했다. 무엇보다 강의식으로 듣는 수업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직접 만든 교재에 내가 쓰고 채우면서 나 스스로에 대한 탐색과 함께 인생관, 목표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생 숫자도 30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수업도 팀티칭과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매 수업시작은 자조정신으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 사진, 각종 자료들로 시작하는데 그 분들의 인생과 성공의 삶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내안의 자신감도 만날 수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따로 준비하여 나눠 준 수업 부교재다. 매일매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15분씩 쓰게 되어 있다. 첫 번째 목표는 매일 조깅을 쓰고 실천한 결과, 체중을 2kg 가량 감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적어놓기만 했다. 점차 그것이 다짐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실천을 통해서 성과를 얻으면서 자부심과 자신감이 커졌다. 그 결

서 “칼날 위를 걷는 이 어려움이야말로 사제단의 정의구현 활동을 범속한 정치운동이 아닌 집단적인 기도요 고행이며 십자가의 아픔이요 하늘에로의 성스러운 출범하였다. 지 주교를 구속으로 몰아넣은 양심선언은 “소위 유신헌법이라는 것은 1972년 10월 17일에 민주헌정을 배신적으로 파괴하고, 국민의 의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국민투표라는 사기극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다”로 시작하고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사품받은 젊은 사제들이 주축이 되어 사제단이 결성되면서 이제 천주교회의 현실참여는 인간 존엄과 기본권 수호, 민주회복과 사회정의의 위한 민주화 투쟁으로 전환되었다.

1974년 12월 18일, 1년 전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숨진 최종길 교수에 대한 추모미사에서 사제단은 “최종길 교수는 고문치사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다. 1975년 2월 24일에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혁당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앙정보부에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것은 사제단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1975년 5월, 옥중의 김지하가 그의 양심선언과 함께 사제단에게 보낸 편지에

노예상태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보낸 세월을 가리킨다. 그러나 사제단이 맞이한 40년은 가난한 땅은커녕, 거친 광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윤산 철거민 참사가, 제주 강정마을이, 밀양 송전탑과 쌍용차 해고가, 국가기관의 대신 개입과 국정원의 여론조작이,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그들을 거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40주년 기념 미사에서 강론을 맡은 신부는 “오늘 피와 땀과 죽음으로 이룬 민주주의는 다시 짓밟히고 있다. 민생은 무너졌고, 통일의 길은 가로막혔다. 다시 40년 전 그 초심으로 돌아가 ‘암흑 속의 햇불’이 돼야 한다는 것이 오늘 기념일에 다시 세우는 소명”이라 했다고 한다. 아니게 아니라, 사제단이 국민과 더불어 피땀으로 열어나온 민주화의 역주행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제단에 대한 교회 안팎의 박해와 음해 또한 재연되고 있다. 그들이라고 거리의 신부가 되고 싶겠는가. 그들도 자부심인 성당에서 미사를 보고 싶어한다. 그들에게 무슨 현재적 욕망이 있는가.

사제단을 모략, 음해하는 사람들에게 안도현의 시귀를 들어 이렇게 묻고 싶다. 너희는 언제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고.

社說

지역 창조센터 대기업들 통 큰 투자해야

대기업들이 광주·전남에 창조경제 혁신센터(이하 창조센터)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기업별로 투자금액을 싸고 시·도와 미묘한 신경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인즉 미래창조과학부가 대기업과 시·도를 묶어준 뒤 투자금액 등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계 순위나 자산규모에 따라 지역에 투자하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 자칫 미래 지역경쟁력의 핵심시설이 될 창조센터마저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발써 재계 서열 1위(공정거래위원회 지난 4월 발표)인 삼성은 대구 창조센터에 900억 원을, 3위인 SK는 대전에 5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전남도는 재계 서열 8위인 GS와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고, 광주시는 서열 2위인 현대차를 파트너로 접촉 중이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남도의 사

정이다. 전남도는 GS그룹 회장이 창조경제혁신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 투자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재계 서열이 앞선 대기업보다 투자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조센터에 투자되는 대기업 투자금은 펀드로 조성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지역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혜택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정부부지사와 실무진 등이 GS측과 면담하는 등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지역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전남도와 연계해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GS측의 전향적인 자세다. 동반성장이라는 기업 이념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통 큰 투자를 통해 지역과의 상생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역사 왜곡·호남 비하 사이트 왜 방치하나

2012년 이후 인터넷 상에 오른 역사 왜곡, 지역 비하 등과 관련한 반인륜적 글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베(일간베스트)’와 ‘오유(오늘의 유머)’ 등 일부 극우 사이트들이 전라도를 비하하고 5·18 민주화쟁을 사기극이라 폄훼하는 등 도를 넘어르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장애인 의원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별·비하 관련 시정 요구 건수가 지난 2011년 4건에서 2013년 622건으로 150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특히 올 9월 말 현재 643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차별·비하 건수는 2011년 4건, 2012년 149건, 지난해는 622건으로 급증하더니 올 9월까지 643건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사이트에 오른 내용이 거짓인 데다 막말과 욕설 일색이어서 자칫 지역감정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게 아닌 가 하는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특정 사이트엔 5·18과 호남을 모독하는 ‘빨갱이’, ‘홍어’, ‘X라디언’, ‘X창도’ 등의 글이 넘쳐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 대한 비난은 물론 이미 고인이 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도 많아 그들이 과연 제정신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 사이트에 대해 제재는커녕 손을 놓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겨우 한다는 게 단순 시정 요구나 권고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극우 사이트의 일탈행위는 심각한 범죄이자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공공의 적’이나 다를 바 없다. 당국은 역사 왜곡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엄정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과 사이트 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우선이다. 5·18과 호남 비하에 대응하고 있는 광주시와 시민단체 등도 적극 역감정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게 아닌 가 하는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기 고



고성희 시인

달력 속에 있던 가을이 푹 떨어졌다. 아침에 강변길을 달렸더니 뱃나루에서 떨어진 낙엽이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뱅글고, 그 바람 사이로 이름 모를 새들이 짹을 지어 앞장서 날아간다. 안개는 강물을 따라 수조 사이로 피어오르고 역새는 큰 키가 되어 흰 이마를 드러내며 흔들리고 있다. 고개를 돌아보니 강변을 따라 강물을 흐르듯 이어지는 길가의 나무들에 갈색으로 불어있는 이파리들이 안타깝고 서글프다. 세월이 벌써 이리 흘렀구나. 강물을 가로지르는 돌다리가 물에 젖어 흰 포말을 그리고 그 위로 개강반복을 얹은 나그네 하나가 이정표 앞에서 흔들리듯 서성인다. 어디로 떠나려는 걸까. 설마 목적지가 없는 건 아니겠지.

차를 세우고 그 광경을 몰그러미 바라

가을을 향한 기도

보고 있던 내게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의 삶과 그 안의 열정과 의지도 생각났다. 지금 내 얼굴에 가득, 흰 수염이 피어나기까지의 삶의 여정과, 그 안에 넘쳐던 희망,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좌절과 슬픔도 떠오르고, 내가 주었던 상처와 내가 받았던 상처도 물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아, 그 시절, 고개를 쥐고 흰 목덜미를 드러내며 멀어져 간 여인은 지금 어디서 어떤 꿈을 꾸는지, 그리고, 그리고... 아직 도 높은 내 몸통이에 남겨진 채 여미지 못한 그리움과 사랑은 어찌해야 할지....

갑자기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강물을 타고 흘렀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들은 우리 삶 속의 기쁨하고 환호했던 것들이 아닌, 오히려 애상과 아쉬움과 아픔의 잔영들이 아닐까. 대학이나 취직시험에 합격하여 환호작약했던 기쁨도 우리 안에 온전히 남아있겠지만 그 보다 어렵고 힘든 시절 보았던 어머니의 눈물이나 한숨이 책을 읽거나 TV의 한 장면을 통해서 불쑥 솟구쳐 가슴을 더 흔든다. 그것은 우리 삶이 갖고 있는 유정함과 유한함 때문이다. 우리 생명의 유한함으로 인해 삶 속에서 사랑과 정으로 서로 얹히고설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람’의 것으로 육화되었기 때문이다.

삶이란 언젠가 우리가 왔던 죽음으로 회귀해야 한다. 따라서 낮아져야 한다. 낮아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낮추고 버리다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기쁨과 환호보다 오히려 슬픔이나 애석함, 전함 등이 가까운 지도 모른다. 푸른 하늘에 맑은 구름, 눈안으로 온통 깨달음이 가득한 이 계절,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를 위해 두 손을 부뚝던 장독대 위 정화수를 결코 잊지 못한다. 무한정한 희생으로 사랑을 나눠 주셨던 부모님에 관한 추억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돌아온 가을이 우리에게 건네는 겸손과 관용과 양보에 관한, 그리고 상생과 답육에 몰든 우리 삶에 대한 성찰을 바라는 메시지인지도 모른다.

가을에 담긴 세상은 자기 품목을 낙엽으로 떨굼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꿈꾸는 나무의 이치를 황갈색 잎으로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아, 또 하나, 사랑과 그리움이다. 가을은 우리 가슴에 그리움과 사랑을 키우고 가꾸고 저장하는 창고이기도 하다. 20대 가을의 붉은 열정을 40대의 가을날 돌아봤고, 이제 흰 수염으로 덮인 해거름에 또다시 반추하고 있다. 사랑과 그에 관한 그리움이 아니면 무엇이 이토록 사무칠 수 있겠는가. 가을 때문이다.

마지막 황혼이 스러질 무렵/ 스무 해전의 편지/ 감입 뒤에 숨은 은백색의 달빛을 밟고 찾아왔다./ 손수건 짙어 눈물을 닦고/ 호롱불 돌워/ 그리움에 달아버린 편지를 꺼내 드니/ 내 청춘에 꿇던 노래 소리 안개처럼 서성인다./ ‘그리워, 그리워 붉은 피보다 그리워/ 새벽보다 깊은 절망으로 그대를 노래하니/ 목숨보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물그러미 바라보는 편지 안의 고개 꺾은 그대 모습/ 세월이 연줄처럼 곱졌다./ 아, 붉은 뺨, 젖은 입술./ 젊은 날의 그 저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만치 가을이 서성이고 있다. (2003년 출시 가을 편지 전문)

세속의 삶에서 늘 부족하고 뒤처졌던 나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장삼이사들에게도 가을에 관한 추억이 있고 그중 으뜸이 사랑일 것이다. 산골을 들어서니 집집마다 팔랑거리는 황갈색 이파리 속에 빨강과 노란 감들이 축복인 양 매달려 있다. 푸른 하늘과 맞닿은 산 그림자에는 구름이 일렁이고 산기슭은 숲으로 가득하다. 아, 가을이 왔다. 내 종착역도 저 숲 속의 도토리만큼은 돼야 할 텐데. 가을이여, 부디 희망과 기쁨만큼이나 좌절과 번민도 알게 해 주소서. 부디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소서.

無 等 鼓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흔히 ‘호구’라고 한다. 최근에는 ‘호갱님’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호구에서 따온 말로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이르는 말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소비자(고객)는 더 이상 ‘왕’이 아닌 ‘봉’이라는 얘기가.

얼마 전 지인이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국내 유명 회사의 47인치 LED TV를 싸게 샀다며 자랑을 했다. 주변에서 해외직구로 TV를 싸게 샀다는 얘기를 듣고 과감하게 주문했는데 만족한다

는 것이었다. 이 제품을 국내에서 사면 135

당신은 호갱님

한 원인데, 미국에서 61만 원에 사고 여기에 관세와 부가세, 배송료, 보험료를 모두 더하고도 40만 원을 아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국내 회사들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호갱님이라 부르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갱님은 가전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따 들어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편법(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 시장의 유통구조를 바꾸겠다고 내놓은 법이 오히려 휴대

폰 구입가만 올려 놓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다보니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서민들은 고액 대접도 못받고 있다. 결국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만 줄여주고 전국민을 호갱님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죽했으면 인터넷 사이트에 ‘호갱지수 테스트’까지 나돌까. 휴대폰 구입시 행태를 묻는 11가지 항목에 사심없이 표시했더니 호갱지수 90%에 ‘당신은 진

정한 호갱, 휴대폰 살 땐 꼭 혼자가지 마세요’라는 결과가 뜬다.

이번에는 국정감사

자료가 ‘부해’를 지른다. OECD 29개 국가 중 개인소득 25위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장 비싸게 사고 있다는 뉴스다. 더구나 삼성전자는 국내 소비자에게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을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절반인 1년밖에 주지 않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책임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내수경기를 살리는 것이다. 내수경기를 살리려면 소비자를 왕으로 모시는 정신이 기본이다. 정부 정책이 국민을 호갱님으로 만든데, 기업들이야 오죽하겠나.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청춘특독·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청춘특독·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통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경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